研究論文

新명문고 열풍으로 본 한국 교육 경쟁의 구조와 특징

외국어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역사교육 전공
jupiter@aks.ac.kr

I. 머리말
II. 고입제도의 변천과 교육 경쟁의 지형 변화
III. 외고 열풍의 구조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과제 공동연구로 수행된 연구임(AKSR 2010-C04).

I. 머리말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한국사회가 겪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적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교육열이 과잉 경쟁과 사회적 불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의견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1)]

이러한 과잉 교육 경쟁에 대한 처방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형 방식이 거듭 수정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평준화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과잉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도농 간, 학교 간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중등학교 진학을 둘러싼 과잉 경쟁은 일단 표면에서 사라졌지만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 경쟁이 집약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입에 집중되었던 교육 경쟁이 점차 어린 학령대로 내려와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경쟁의 역행적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를 비롯한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가 아닌가 한다.[2)]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외고 등 특목고가 이른바 대입 명문고로 부상하면서 대입 경쟁이 좀 더 이른 시기의 특목고 진학 경쟁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교육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열풍' 현상의 하나로 주목해보고자 한다.

---

1) 교육열은 교육열 현상 또는 학력열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한국의 과잉 교육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교육열 자체가 갖는 긍정적 에너지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짙다(오만석 외,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20-21쪽; 이종각, 『교육열 바라보기』, 원미사, 2003, 77-80쪽). 필자 또한 이러한 견해와 다르지 않으나 교육열이 보다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잉 교육열의 실상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구성했음을 밝혀둔다.

2) 특목고라는 용어는 1973년 6월 '새 입학제도의 확정안'을 통해 삼육 · 성심 · 중경 · 국악 · 서울 예술 · 체육 · 철도 · 부산해양 등 8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유사 계열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1992년 이후 법령상 특목고는 과학 · 외국어 · 예술 · 체육 · 국제 · 농 · 공 · 수산 · 해양 등 9개 계열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22일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학고, 외고 · 국제고, 예고 · 체고, 마이스터고 등 4개 계열만을 특목고로 규정하고, 나머지 전문계 특목고 및 종전의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되는 특목고는 이 모든 계열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대입 명문으로 주목되는 과학고 · 외고 · 국제고에 한정하여 사용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현상을 평준화 이전 시대의 명문고와 대비하면서 '신(新)명문고 열풍'이라 명명하고 이것이 갖는 특성과 복합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목고 중 외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외고가 설립·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비평준화 시대의 명문고 경쟁을 능가하는 과열 경쟁을 유발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또한 외고는 특목고 중 가장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정책 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함과 동시에 외고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을 실시했으며 외고 현황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였다. 외고 관련자 면담은 2007년과 2010년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2007년은 외고에 대한 개선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2008 입시' 적용을 앞 둔 시점이었으며, 2010년은 외고 전환을 검토하는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이다. 2007년의 경우 학생 20명, 학부모 20명, 기타 10명을 면담했으며, 2010년에는 외고를 둘러싼 인식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대학생·학부모·초중고생의 면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글의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만을 부분적으로 발췌·인용하였다.[3] 아울러 외고 현황은 2008-2009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진학 실적 등 구체적인 자료의 일부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표화했음을 밝혀둔다.

---

3) 이 글에서 인용되는 면담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적사항	특기사항	면담일시
초등생 A	서울시 종로구 이**	초등 6년생, 외고 진학 희망자	2010. 8
중학생 B	서울시 강남구 박**	중학 2년생, 외고 진학 희망자	2007. 1
고교생 C	서울 강남구 이**	D외고 1년생	2007. 4
대학생 D	경기도 의왕시 김**	일반고 졸업 후 서울대 진학(D외고 낙방 경험)	2010. 7
대학생 E	경기도 안양시 심**	Y외고 졸업 후 서울대 진학	2010. 7
대학생 F	서울시 관악구 이**	일반고 졸업 후 서울대 진학(Y외고 낙방 경험)	2010. 9
학부모 A	서울시 강남구 박**	과고 2년생(일반고) 중학 3년생(외고 진학 희망)	2007. 1
학부모 B	서울시 중랑구 최**	고 3년생(외고 중퇴)과 고 1년생(일반고)	2007. 3
학부모 C	서울시 관악구 김**	초등 2년생 母, 외고 진학 희망	2010. 8
학부모 D	서울시 강남구 오**	중학 2년생 母, 외고 진학 희망	2010. 9
학부모 E	경기도 과천시 강**	D대 재학생 母, 외고 졸업 후 유학	2010. 9
고교교사 A	전남 해남시 최**	지방 일반고 고 3년생 담당	2007. 3
고교교사 B	서울시 강동구 김**	D외고 교사	2007. 3
학원강사 A	M학원 윤**	외고 진학 상담 담당(교육기획컨설턴트)	2010. 9
학원강사 B	S학원 이**	논술 유명 강사(외고생 중심 소그룹 과외)	2007. 2

II. 고입제도의 변천과 교육 경쟁의 지형 변화

한국교육은 오랫동안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 다수가 질 높은 교육을 수혜받도록 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육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수를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고입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교육 경쟁의 지형 변화를 짚어보기로 한다.

1. 학령 인구의 급증과 고입 경쟁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한국교육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급증하게 된 출산으로 1960년대부터 학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다.[4] 이와 동시에 1959년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급속한 학생 수 증가는 중학교 진학 경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중학교 입시는 각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별 전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초등(국민)학교 내신서와 필답고사 등의 결과를 판단근거로 삼았다.[5] 학생은 지역 제한 없이 국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다.

1960년 중반에 이르러 갑작스레 중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학교 수요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나 중학교 진학이 중상층에 한정되었던 종래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입시 경쟁의 단면으로 자주 언급되는 무즙 파동은[6] 바로 1965년 중학 교 진학 경쟁을

---

4) 강상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 『교육개발』 32-4(2005), 17쪽에서 재인용.

5) 중학교 입시전형은 몇 차례 제도 개선을 반복하면서 점차 학교 단위 전형보다는 시도 단위의 공동 출제 및 관리 쪽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공교육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초기부터 사적 자율성보다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앙교육평가원,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천사-입시제도 개선연구(III)』(1986), 190-192쪽).

6) 1964년 12월 7일에 치러진 서울 중학교 입시전형 지필고사에서 엿을 만드는 데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을 묻는 문항에서 정답을 디아스타제로 발표하였으나 보기에 명시된 무즙으로도 엿을 고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에 정부는 급격하게 확대된 교육 수요에 맞게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교육은 이미 보통 교육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므로 과도한 경쟁에 의한 차등과 선별이 사회 발전의 부정적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로부터 입시 과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배려도 중요한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이로써 초등(국민)학생의 입시 부담은 덜어졌지만 유예되었던 입시 경쟁은 곧바로 고등학교 입시로 옮겨 갔다. 이른바 명문고로 통칭되는 1차 지원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극심한 경쟁으로 집약되었던 것이다. 당시 명문고는 시도별로 1개 내외의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1975년을 기준으로 당시의 전체 고등학생 수 대비 명문고 정원 수 비율을 환산해보면 4% 수준이다.[7] 그런데 이들은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50대 이후 세대의 학연이나 인맥은 고등학교 동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명문고 학연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지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사회 진출 상황이나 영향력을 면밀하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주요 대학 합격자 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표1에서 보듯 명문고 출신자들의 주요 대학 진학 실적은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서울대학의 경우 당시 모집 정원이 2856명이었는데 제시한 9개 고교 출신자들이 70%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개 고교 학생이 전체 고등학생의 0.9%에 그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명문고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합격률을 두고 특정 고교의 부당한 독점으로 보는 비판은 없었다. 사회적 격차가 적은 시절이었으므로 사회적 수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경쟁을 열린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개발의 시대였으므로 설사 이 경쟁에서

둘러싸고 벌어진 입시 파동이다. 결국 이 파동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1965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하고 이를 오답으로 처리하여 불합격된 39명의 학생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7) 1975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2만 명이며(http://cesi.kedi.re.kr/index.jsp), 명문고 모집 정원은 1만 5000여 명이었다.

표1-명문고 졸업생의 주요 대학 합격자 수(1975)[8]

학교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계
경기고	512	51	30		593
서울고	435	84	17		536
경복고	232	89	54		375
부산고	159	65	28		252
경남고	155	115	31		301
경북고	152	37	35		224
용산고	130	73	76		279
경기여고	129	28	65	332	554
이화여고	102	31	115	430	678

뒤처진다 하더라도 그 격차는 언젠가 극복될 수 있다고 여겼다. 게다가 당시 대입전형은 지필 평가로만 이루어져 그 결과를 순위별로 서열화하는 선발 방식이었으므로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었다.[9]

이 시기 대학 진학 결과에서 주목해볼 또 하나의 사실은 지방의 명문고 또한 서울 지역 고교에 버금갈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정원이 720명 수준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600명 또는 그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수치보다 더 적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가 그다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학습 방법이나 정보의 편차가 적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곧 학생의 학습 환경이나 여건이 학업 성취 결과에 그다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신명문고와 비교해볼 때 이 시기 명문고 경쟁은 비교적 조건의 차별 없이 전개되는 '열린 경쟁'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10]

2. 경쟁 완화와 기회 균등의 모색

그러나 명문고의 약진은 과도한 고입 경쟁을 야기했고 결국 많은

8) 지식 중심의 지필 평가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 「一流大 진학 名門高서 휩쓸어」, 《경향신문》, 1975년 1월 27일자. 그나마 이러한 자료가 남게 된 것은 1974년 평준화 제도가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자 평준화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명문고의 독점적 진학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10) 학습 환경이 크게 좌우하는 현재와 달리 학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명문고에 진학할 수 있는 구도였다는 점, 즉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열린'으로 표현한 것임을 부언해둔다.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해나갔다. 19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극비리에 고교 입시 개편을 연구했으며, 1973년 3월에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뒤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에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평준화' 제도가 시작되었다.[11] 학생 · 교원 · 시설의 평준화를 내걸고 거주지 위주의 추첨제 강제 배정, 공립학교 교사 순환 전보제, 여건 취약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추진해나갔다.

당시 평준화로의 전환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인 동시에 입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초스피드 정책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시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교육 수요와 이로 인해 파생된 교육 경쟁이 고입에 집적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여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교육정책 가운데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데 교육정책 중 최장수 정책이기도 하다. 비록 평준화의 공과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찬성하는 여론이 좀 더 우위에 있다.[12] 전통적인 과거(科擧) 경험과 함께 최근세사의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요구가 보편화된 한국에서[13] 사회 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평준화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서울신문은 평준화 이전과 이후의 고위 공직자 배출 고교 수를 비교한 바 있는데, 평준화 이전에는

---

11) 이후 1975년에는 인천, 광주, 대구, 1980년대에는 전국 2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부 지역에서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해왔지만 현재 전국 13개 시도 27개 시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주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여론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조사 시기	1986	1990	1995	2000	2002	2004
찬성	52.0	54.4	64.0	74.9	65.0	65.7
반대	32.9	45.6	36.0	25.1	32.5	34.3
조사 기관	교육개혁위원회	KEDI	KEDI	경기	박부권	KEDI

이와 더불어 한유경은 집단별 평준화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바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교원 중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높으나 전문직이나 관리직은 이에 비해 낮은 편이며, 명문 사학은 비평준화를 찬성하나 영세사학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평준화를 확대 유지하는 데 대해 찬성하고 있다(한유경, 「평준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평준화와 학교선택권』, 한국교육개발원, 2005, 184쪽).

13) 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1999).

69개교에서 고시 출신 공직자를 배출하였으나 평준화 시절에는 433개교에서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조인 3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507개교이며 이 중 1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는 모두 101개교였다. 101개교는 비평준화 9개교와 평준화 92개교였다. 평준화 실시로 명문고 중심의 학연과 학벌주의가 확연하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4] 하지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비판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5]

결국 이 조치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와 이에 따라 극심해지는 교육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었다. 단지 고입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현상을 유보하는 효과를 거둔 데 불과하다. 이로 인해 극심한 교육 경쟁은 대입으로 또다시 상향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이끌어내고 말았다.

3. 고교 다원화와 고입 경쟁의 부활

평준화의 공과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는 점차 힘을 얻어갔다. 평준화 체제(within school)와 별도의 학교체제(between school) 중 어느 쪽에서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별도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특목고였다.

특목고는 어디까지나 평등성과 수월성의 가치 갈등 속에서 탄생한 보완재로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 특성화 · 자율화라는 명목하에 시작되

14) 「고교평준화 30년 그 후(1) 명문고 지도가 바뀐다」, 《서울신문》, 2006년 6월 27일자.

15)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공방은 애초부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찬성 측 입장은 평준화 정책이 미치는 효과와 그에 대한 지지를 다수 국민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평준화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우수한 소수 집단으로부터 풀어내고 자신과 관련된 당사자가 명문고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찬성 측은 공적 요구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사적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고는 이 글의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세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었다. 1973년 6월 '새 입학제도의 확정안'을 통해 삼육 · 성심 · 중경 · 국악 · 서울 예술 · 체육 · 철도 · 부산해양 등 8개 학교가 특목고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과학계열'이 특목고에 포함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수원시에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세웠다. 이 당시 어학영재를 위한 외국어고도 1980년 초부터 논의되었지만 어학영재에 대한 기준이나 판별 방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효성이나 교육정책상의 명분에서도 과학영재 육성에 비해 뒤떨어졌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로 함께 출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외국어고는 '각종 학교' 형태로 출발하였다.[16]

그러던 중 1990년 문교부[17]는 각종 학교 형태로 있는 외국어학교를 정식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1992년부터 외국어학교 신설을 인가해주며 전형 방법과 절차에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 2001년이 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목고의 지정 · 고시권을 시도교육감에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특목고 신설을 허가하였다. 특히 2004년 1월 경기도가 밝힌 '특목고 교육벨트' 조성계획은 이를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양되었던 설립허가권에 일부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고는 계속 증설되어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33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18]

이처럼 외고의 증설이 두드러진 것은 일차적으로는 과학고 등과는 달리 특별한 시설 투자의 부담이 없는 데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외고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다.[19] 또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영어교육 열풍이 맞물리면서 외고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고가 증설된 중요한 원인은 대학 입학 또는 준비에 대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요가 증폭되었던 데 있다 하겠다.

궁극적으로 특목고 등 다양한 고교의 설립은 평준화 이후 대입에 집약된 과도한 경쟁을 뚫고 나와 좀 더 이른 시기에 유리한 조건을

16) 김영철, 대한민국교육정책사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8), 142-143쪽.

17)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이었던 기관의 명칭은 당대의 명칭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참고로 1948년 11월 4일 문교부가 발족된 후, 1990년 12월 27일 교육부로,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칭되었다.

선점하려는 현실적 요구와 결합된 것이라 하겠다. 즉,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상향 이동시킨 교육 경쟁이 그 한계에 달하자 민간의 요구와 결합하면서 다시 하향 이동하고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가는 전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III. 외고 열풍의 구조

이상에서 고입제도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경쟁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고를 둘러싼 열풍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고 열풍은 한국사회의 교육 경쟁이 대입에 집약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한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외고 열풍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과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8) 2010년 현재의 외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학교 수	학교명(설립별, 설립연도)
서울	6	대일(사립, 1983), 대원(사립, 1984), 한영(사립, 1990), 이화여자외고(사립, 1992), 명덕(사립, 1992), 서울(사립, 1992)
부산	3	부산(사립, 1985), 부일(사립, 1994), 부산국제(사립, 2003)
대구	1	대구(공립, 1997)
인천	2	인천(사립, 1985), 미추홀(사립, 2010)
대전	1	대전(공립, 1995)
울산	1	울산(공립, 2010)
경기	9	과천(사립, 1990), 안양(사립,1996), 고양(사립, 2002), 경기(사립, 2004), 동두천(공립, 2005), 용인(사립, 2005), 수원(공립, 2006), 성남(공립, 2006), 김포(사립, 2006)
강원	1	강원(사립, 2010)
충북	2	청주(공립, 1992), 중산(사립, 1992)
충남	1	충남(공립, 2008)
전북	1	전북(공립, 2005)
전남	1	전남(공립, 1994)
경북	1	경북(공립, 1995)
경남	2	경남(사립, 1987), 김해(공립, 2006)
제주	1	제주(공립, 2004)
총계	33	공립 12개교, 사립 18개교)

19) 박부권, 「모든 학생들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9), 7-8쪽.

1. 다수 장기 참여와 불안구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29.5%가 외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7.7%가 희망하고 있다고 집계되었다. 외고 모집 정원을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와 대비해보면 1.25%에 달하고 있으므로[20], 세대별 인구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초등학교에서는 29 : 1, 중학교에서는 7 : 1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연구 성과에 의하면 특목고 진학 희망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94.2%, 중학생은 8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 학생 중 부모의 가계 소득이 최상위계층(10%)이면 초등학생의 97%, 중학생의 10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21] 다른 한편에서는 20%에 달하는 중상류층 자녀가 0.1% 그룹에 포함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라는 분석도 있다.[22] 어쨌든 20 : 1을 넘나드는 높은 경쟁 구도가 고입과 한참 동떨어진 어린 초등학생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이들을 장기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 다음의 면담 자료로부터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가-1. 힘들지만 뒤처지지 않게

수학도 중요하고 또 들어가면 모두 잘하는 애들이니까 지금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해두는 게 […] 영어듣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학원 따라가는 게 힘들지만 지금 뒤처지면 제 인생이 계속 그럴 것이니까 […]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참고 하라고 부모님도 그러시고 […] 외고를 늦게 준비하니까 힘듭니다. **(중학 2년생, 외고 진학 희망자/중학생 B)**

가-2. 빠를수록 좋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목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언제부터 준비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 이 학생의 경우는 학교 성적은 좋지만 외고 준비가 늦은 편이라 […] 학교 성적보다 우리가 하는 레벨테스트로 정합니다. 이미 시작한 학생과 부모들 때문에라도 그냥 반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

20) 2009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이며(http://cesi.kedi.re.kr/index.jsp), 전국 외고의 모집 정원은 8200여 명이다(2009년 조사 자료).

21)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2007년 3월 20일자.

22) 정병호 외,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제작소(2007), 13-14쪽.

원하시면 별도의 보충도 제공하고 또 다른 관리도 해드립니다. **(외고 진학 담당/학원 강사 A)**

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늦게 준비하여 부족하다는 강박관념과 조급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조바심은 궁극적으로 가-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고 진학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사회적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외고 입시 대비 사설 학원이다. 가-2에서 보듯이 학원은 일단 경쟁 구도에 들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수강생을 서열화하고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위 레벨의 진입을 독려한다. 결국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길들임으로써 끝없는 장기 구도의 경쟁판을 가동하여 담금질하고 있다. 가-2의 상담 사례는 보통의 학원에서 으레 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최근에 와서는 공공연하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목고 로드맵이[23] 회자되기까지 하면서 학원가의 외고 대비 프로그램이 더욱 장기화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외고 경쟁을 둘러싼 불안과 강박관념은 이미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에까지 내려와 있다.

가-3. 늦었지만 열심히

저는 6학년 올라가는 방학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이 늦었죠.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봤는데 낮은 반이 나와서 높은 반에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초등 6년생 외고 진학 희망/초등생 A)**

가-4. 불안해서 뭐든지 시키고 싶어

학원의 높은 반에 들어가려고 과외로 보충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유가

---

23) 이 외국어고 합격 로드맵은 김성천(2009)에서 외고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 1-2학년		중등 3학년
영어유치원 (학원)	⇒	영어 어학원 수학 선행 학습	⇒	영어어학원 수학 선행 학습 (조기 어학연수)	⇒	영어어학원 외고 입시 대비 수학 선행 학습 각종 공인시험 및 경시대회	⇒	외고 입시 대비 수학 선행 학습

김성천, 「정두언 의원의 외고체제 개혁 법안을 분석, 평가한다」, 『외고대책긴급토론회 자료집』(2009), 5쪽.

있는 학부모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개인 교습을 하기도 해요. […]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기 대회 같은 데서 상 받은 경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니까 학원에서 원고도 써주고 별도 레슨도 해주고 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떤 학원이 이런 걸 잘하고 높은 반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과외를 더 해야 하고 뭐 이런 것을 알기 위해 모임을 쫓아다니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불안해지죠. 여유만 있다면 뭐든지 애들에게 들이대야죠. **(학부모 C)**

가-3은 외고 준비 학원으로 알려진 보습학원을 나오는 초등학생과 이루어진 면담 내용이다. 여기서 보듯이 외고 준비가 늦은 자신에 대해 과다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강박관념은 외고 입시 경쟁 판을 크게 불리고 복잡다단하게 엮고 있다. 가-4의 사례를 보면 사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교육 투입의 동인이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그 상한을 설정할 수가 없다. '여유만 있다면 뭐든지'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대비하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리 투입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병적인 경쟁 구도가 이미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남보다 더 빨리' 입시 경쟁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한때 외고 낙방을 조기 교육 부족 탓으로 자책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서울대생은 당시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근거 없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5.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근거 없는 아쉬움

외고 낙방 후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며 아쉬워하고 부모님이 신경 써주지 않은 것이라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 이제 와 생각하면 나 자신을 변명하는 핑계를 찾았던 것 같다. […] 외고에 실패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지금 당시의 심경을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답답함과 조급함, 뭐 그런 것이었다. 불필요하게 나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감정몰이였다. 차라리 외고라는 존재를 몰랐던 것이 더 나았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생 F)**

한마디로 근거 없는 불안과 강박관념이 사교육의 자본 논리와 만나 외고 입시 경쟁의 판을 끝없이 불리고 다수를 긴 경쟁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2. 대입 명문기관의 탄생과 파행구조

외고는 어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러한 목적보다는 줄곧 대입 명문고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설립 취지와 다른 운영은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파행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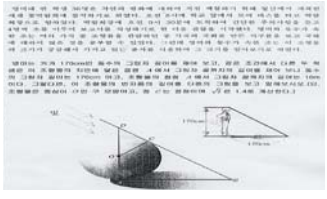
외고의 파행은 선발전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외고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언어영역과 무관한 고난이도의 집필 평가가 시행되어왔다. 외고전형 시 치르는 선발고사는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 사고력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문제들로 구성된다. 그러다 보니 외고전형을 치르려면 사실상 외고 대비 입시 전문학원에서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결국 외고 진학에 대비하는 전문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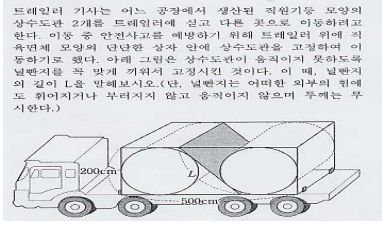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보기 위해 2005년 외국어고 입시 공동출제위원회에 중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되 수학, 과학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구술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5개 항을 지침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2006학년도 입시에서 구술면접 시험이 본고사형 수학문제로 출제되어[24] 또다시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교육청은 관련 교장에 대해 구두로 경고하고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25] 주목할 만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외고 스스로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24) 아래 사례는 2005년 외고전형에서 출제된 필답고사 문항이다. 한눈에 보더라도 수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임을 알 수 있다(2006년 외국어고등학교 실태조사 자료).





25) 「서울지역 외고 수학 본고사 논란 […] 교육청, 교장들 소환 강력 대응키로」, 《국민일보》, 2006년 1월 19일자; 「외고 입시 본고사형 문제 '논란', 서울 6개고 수학 등 출제 […] 교육청 지침 위반」, 《경향신문》, 2006년 1월 19일자.

구술면접을 둘러싼 관련자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1. 어이없는 구술면접

구술면접을 보고 상당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모두 저보고 논리적이며 주관이 강한 아이라고 칭찬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면접장 밖을 나오니 아이들은 학원선생님으로 보이는 분 앞에 가서 답을 확인하고 몇 점이라고 적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 결국 낙방했는데 저는 공식 확인을 요청해 제 면접점수가 (1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단답식 채점 […] 그러니까 면접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었고, 채점은 대기방에서 쓴 답지로만 했던 거죠. 면접은 말 그대로 형식적이었고 […] 순간 외고입시에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D)**

나-2. 구술면접으로 변별력을 갖기 위해 필요

외고이기 때문에 영어듣기는 50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50점은 내신하고 […] 그런데 영어듣기나 내신으로는 별로 변별력이 안 생기니 […] 그래도 어느 정도 닦여져 쌓여 있는 아이가 입학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술면접을 봅니다. **(외고 교사/고교교사 B)**

나-3. 구술면접 전문학원에서 훈련받아야

외고 준비 학생들은 영어듣기 훈련을 많이 하여 우수한 성적을 따기 때문에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구술면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구술면접은 여러 교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며 이미 유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학교에서 또는 개인이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학원은 이러한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어 외고 진학 실적이 좋은 거다. **(학원강사 A)**

구술시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파행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1의 학생 진술로부터 사설학원의 훈련 없이 전형 요강을 그대로 믿은 학생이 느꼈을 황당함과 분노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이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외고나 학원 측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교육이 마련한 외고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이미 결과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 양자는 외고 경쟁 구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위해 편법적인 입시전형에

공생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과도한 보조 맞추기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11월 김포외고의 입시부정이다. 사건은 학교의 입학홍보부장을 담당하는 L 교사가 서울 소재의 한 특목고 전문학원장인 K씨에게 입학문제 총 80문항 중 53문제를 빼돌리면서 시작되었다.[26] 학원장 K씨는 시험당일 이 중 13문제를 골라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속에서 수험생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설명까지 해주었다. L 교사의 문제 유출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대포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은밀하게 대가를 기대하고 사전공모한 사건이었다.

이후 외국어고와 관련 학원 간의 연계와 이로 인한 부정에 관한 폭로가 속출하고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었다. 이와 연이어 외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고조되었다. 일각의 시민단체는 김포외고의 외고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속시원한 대책이나 합당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7]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L 교사는 잠적 후 4개월 만에 체포되어 파면당했지만 해당 학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28]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 교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김포학원은 정직 3개월로 처리하였다.[29] 더욱 아이러니한 일은 다음 해인 2010년 전형에서 김포외고는 경기도 내 외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15.6 : 1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김포외고의 입시 부정이 오히려 학교의 인지도를 높여준 것이다.

파행적 구도가 외고의 위상을 제고한 것은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다. 학사 운영, 성적처리 등의 다양한 편법과 위법이 공개되었는데 이 또한 입시명문고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2007년 1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목적고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례에

---

26) 영어 듣기문제 20문항을 제외하면 필답문항의 거의 대부분이 유출되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는 35문항이 유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L 교사의 포맷한 노트 분을 전문가가 복원한 결과 53문항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외고 문제 거의 통째로 유출」, 《동아일보》, 2007년 12월 1일자.

27) 이 사건의 수습과정에서는 문제유출로 인한 합격취소,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것의 수습과 함께 점차 이 문제는 잊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작 김포외고에 대한 제재나 외고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흐려지고 말았다.

28) 오히려 사전에 문제를 접해 합격이 취소된 44명에 대해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에 원래 정원 184명보다 44명이 늘어난 228명이 수학하는 혜택(?)을 얻게 되었다. 「김포외고 합격취소 44명 전원합격 판결」, 《세계일보》, 2007년 12월 29일자.

29) 「김포외고 교장 고작 '정직 3개월'」, 《세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대한 징계와 향후 관리, 감독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입학전형에서 수리 또는 과학형 문제 출제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상 설치 운영될 수 없는 자연계 과정을 특별활동 시간 등에 편성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고려하여 외국어성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급별 점수 기준을, 80점 이상을 A로 환산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과목이 A로 표기되도록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30]

당시 외고 측에서는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적에 대하여 일단 외고교장단협의회를 소집하여 사태수습과 자성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극심한 비판을 무마했지만 적극적인 해명이나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편법 운영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입 명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외고 진학의 열풍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언론의 지적이 있은 뒤 외고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나-4. 입시교육 제대로 시킨다면 어떻게든 보내야

좋은 학생들과 그래도 영향력 있는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뭐라고 해도 독자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 […] 고등학교는 어차피 대학을 준비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것에 맞게 학생을 소신껏 잘 관리하는 외고에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면 나아질 가능성도 많을 테고 **(학부모 D)**

나-5. 둘째의 외고 진학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어

큰 애 중2, 작은 애 초6 때 상계동 아파트를 팔아 좀 더 돈을 보태어 이곳(대치동)에 전세를 들어왔다. 처음에는 엄마들도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학원 상담만 수차 쫓아다녔는데 […] 작은 애는 최근의 외고 뉴스를 보면 여기에 보내는 게 대학 진학에 좋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 아이는 대들고 버릇없이 굴지만 목표가 확실하니 안심이다. 이곳은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다. **(학부모 A)**

나-6. 유학생을 위한 배려에 마음 굳혀

내신이 불리하다는 말이 많아 외고를 보내야 할지 어떨지 결정하지 못했다.

---

30) 교육인적자원부, 「특수목적고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일부 외국어고, 자연계 운영 등 부적정 사례 확인」, 2007년 1월 7일 보도 자료.

그런데 외고가 외국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해준다고 하니 내신 나쁘면 외국 대학 가면 되겠다 싶어 가라고 했다. **(학부모 E)**

한결같이 외고가 대입을 목표로 왜곡하고 변형한 파행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자녀가 그것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미 외고가 획득한 명문 대입기관의 지위는 편법마저도 그들이 가진 실력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표2-외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추이 (2003-2009년)[31]

졸업연도	어문계열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기타(유학 등)
2003년	26.4	52.4	11.1	3.1	7.0
2004년	26.5	49.5	12.4	4.1	7.5
2005년	27.5	45.7	14.6	4.5	7.7
2006년	25.0	43.6	17.6	5.9	7.9
2007년	25.8	41.6	18.1	7.1	7.4
2008년	30.4	52.4	9.8	1.5	5.9
2009년	25.0	60.1	9.2	0.9	4.8

파행적 학사 운영보다 더 외고 열풍을 달군 것은 그 결과 나타난 외고 졸업생의 진학 상황이었다. 외고생의 대학 진학은 어문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의 진학이 월등히 앞서고 심지어 이공계나 의학계의 진학도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지방 외고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 외고의 현황 자료인데, 수도권 외고의 경우는 어문계열 진학 비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한 예로 2007학년도 대원외고 졸업자 501명 중 21%에 해당하는 106명이 경영 혹은 상경 계열로, 20.4%에 해당하는 102명은 법학계열, 5.2%가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 대학 진학 학생이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32] 어문계열 진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고가 당초의 설립목적을 구현하지 못하고 이와 다른 학사 운영을 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31)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200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2009).

32) 동일한 시기의 자료는 아니나 2008년도 해외 대학 진학생은 111명으로 정원 대비 25.0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유사한 상황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해외 대학 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민사고로 57.14%이며, 한국외대부속외고의 경우 26.49%로 대원외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밖에 학교는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2008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진학 상황 비공식 조사 자료).

교육부가 이러한 진학 상황을 공개한 것은 외고의 편법적 운영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비어문계 진학 상황에 대한 지적 또한 외고 열풍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고의 각종 파행이 지적된 이후 외고 지원율은 더욱 올랐다. 2006학년도의 경우 서울이 4.3 : 1, 경기가 4.2 : 1이었는데, 2007학년도에는 각각 5.99 : 1과 6.8 : 1로 상승한다. 다시 2008학년도가 되면 서울은 5.63 : 1로 다소 주춤했으나 경기는 8.6 : 1까지 증가한다.[33]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발표된 당시 자녀의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반응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7. 어문계열만 가는 게 아니라니 오히려 마음을 굳히게 돼

외고생들이 다양한 학과에 진학한다는 것을 듣고 아들을 꼭 보내어 대학이라도 가게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 컴퓨터 앞에서 오락만 해대고 외고 가라면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외고를 집어넣는 좋은 구실을 찾은 거죠. **(학부모 B)**

이러한 여론의 반응에 힘입어 외고 관계자는 전면에 나서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 홍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나-8. 외고는 외국어를 기초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곳

외고는 동시통역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곳, 외국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일정한 계통으로 진학 방향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P외고 부장교사)**[34]

외국어 잘하는 기자도 필요하고, 행정고시로 공무원이 되어 국제협상도 해야 하며, 영어 잘하는 법조인이 되어 외국계 로펌에서 일할 인재도 필요한 현실에서 이런 인재 양성은 외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C외고 교장)**[35]

글로벌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고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H외고 교장)**[36]

---

33) 이상의 입시경쟁률은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2009학년도에 와서는 4.29 : 1과 6.7 : 1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외고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원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제도 정착과 이에 대한 외고의 자기 개선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4) 원은희, 「100년 교육,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시민시대』 277(2007).

35) 「지방 외고의 분노 · 소외감」, 《매일경제》, 2009년 11월 2일자.

36) 「'외국어고 폐지' 논란 확산」, 《연합뉴스》, 2009년 10월 18일자.

나-8에서 제시한 사례는 2009년 외고 개선안 발표 시 외고 교장단의 반응을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극적인 무마 또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종래와는 달리 외고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입명문고로서의 자기 위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파행 구조 속에서 서서히 대입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만든 연후에 이에 대한 지적을 공세적으로 비판하면서 점차 그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3. 특권의 집적과 다층적 차별구조

외고의 우수한 대학 진학 실적은 대입 명문고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작용했고, 역으로 우수한 대입 실적은 외고생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유리한 특권을 부여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자는 전자에 의한 반사이익이라 할 수 있다. 전자로 인해 후자가 강화되고 후자로 인해 전자가 강화되는 순환구조 속에서 외고는 점차 대입의 특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특권이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1. 외고생이라는 자신감

그룹과외에 타교생이 포함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들끼리 하기를 원합니다. 외고생으로서의 자신감이랄까 우월의식이랄까? […] 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도 외고인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 B)**

다-2. 외고 안 갔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듯

외고를 가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했다면 대학에 진학했겠죠? 그러나 각 대학의 전형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자꾸 바뀌니까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학생 E)**

위에서 보듯이 외고생이 명문대 입학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는 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특권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고 수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전에 외고 출신자라는 '신용증명'의

효과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37] 이러한 선별 인식은 다-1에서 보듯이 외고생에게 자신감과 역할 기대를 제고시키지만 역으로 다-2에서 보듯이 타교생에게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고생은 이중의 효과를 수혜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선별 인식이 수험생의 심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내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 대입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고의 높은 대학 진학 행보에 큰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조치였다. 이 조치가 발표된 당시 2005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2004년에 6 : 1에 달하던 경쟁률이 4 : 1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도 잠시 외고 경쟁률은 2007년에 다시 6.5 : 1 이상의 경쟁률을 회복하는데, 이러한 상승을 초래한 것은 바로 각 대학의 전형제도였다.[38] 각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강화하고 국제학부나 글로벌 전형 확대[39], 수능 위주의 선발 등 특목고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을 내놓았기

37)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2003), 155-158쪽.
38) 강영혜 외,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7), 146-148쪽.
39) 주요 대학별 글로벌 인재 전형의 확대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이화여대	외국어우수자 70	국제학전문인 72 외국어우수자 100	국제학전문인 72 외국어우수자 100	이화글로벌인재 200	이화글로벌인재 250
고려대	국제학부 20	국제학부 30 글로벌인재 112	국제학부 40 글로벌인재 200	국제학부 50 글로벌인재 110 글로벌KU 50	국제학부 45(+60) 세계선도인재 250 World KU 50
연세대	글로벌리더 51	글로벌리더 98 언더우드국제학부 50	글로벌리더 198 언더우드국제학부 58(+27*)	글로벌리더 198 언더우드국제학부 70	글로벌리더 600** 언더우드국제대학 120

* 괄호 속의 27명은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한 수치이다.
** 최근 연세대학교는 2012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리더 전형을 점차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에는 400명, 2013년도에는 이러한 명칭의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 우수자 전형에 통합할 예정이다(「연세대 600명 '글로벌리더 전형' 폐지」, 《동아일보》, 2010년 11월 11일자). 외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고 졸업자에게 유리한 전형은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외고와 비외고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3. 우리를 구제해줄 제도가 있을 거야

우리는 입학할 때 내신을 상대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목고를 선택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특별전형이나 논술, 면접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실험용 쥐' 신세인 것 같긴 하지만 […]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고 재학생/고교생 C)**

다-4. 내신강화의 입시제도 지속되길

내신비중이 강화되니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 농어촌 지역 학부모도 자녀 공부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 가지 대입 정보가 없어 그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겠거니……' 믿는 편이다. 그런 기대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를 자주 바꾸고 대학들에 휘둘려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무척 혼란스럽다. **(고교교사 A)**

그러나 2008 대학입시는 국가 공권력이 강력한 시행의지를 천명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은 다-4의 강한 바람을 저버리고 다-3의 불투명한 기대에 부합하는 전형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외고생은 다른 고교생들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선별 인식과 함께 그들을 둘러싼 제 여건이 여론을 끌어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대학의 외고생 뽑기 경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40]

그러나 이러한 특권이 모든 외고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고 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그룹과 지방권의 마이너 그룹이 현격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

40) 이러한 전형 방식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반대론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발은 개별 학생이 갖거나 획득하게 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속한 집단에 따라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즉, 개인의 능력보다는 외고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받는 이른바 학벌주의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지론자들은 외고 등 특목고 출신자들이 수능 성적이나 재학 중 치르는 학력 평가에서 월등하게 높은 성취를 거두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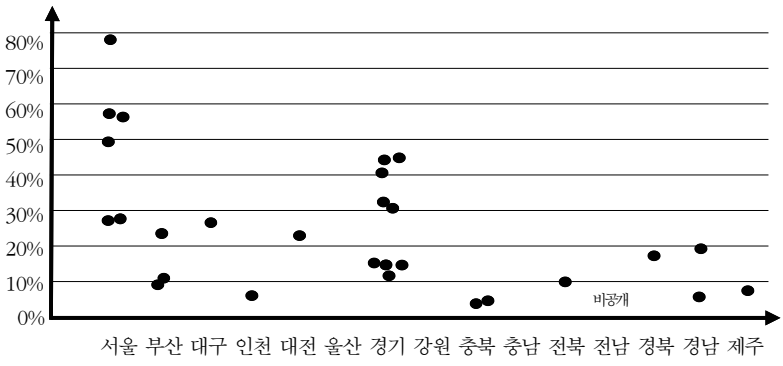


그림1-2009년 외고 졸업생의 주요 대학 진학률[41]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외교와 지방 외고 간의 격차는 현격하다. 일부 지방 외고의 정원은 수도권 외고의 절반 이하에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격생 수는 5명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 외고는 일반고등학교와 거의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진학률이 40% 이상을 상회하는 외고는 모집정원도 400명 내외여서 수적으로 대비하면 실제 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고 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수도권의 상위권 외고의 주요 대학 진학 실적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표3은 서울대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높은 합격률 순으로 상위 5개 학교를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비록 서로 다른 시대 배경과 제도 속에서 운영되는 두 그룹의 학교를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표3에 나타난 비율상으로는 외고의 합격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인문계열 합격생만 고려한 수치이므로 자연계열 진학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고의 경우 서울대 합격률은 비평준화 시기보다 낮은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합격률이

41) 이 자료는 2009학년도 외고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를 모집 정원에 대비하여 백분율로 한 것이다. 조사 당시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요청하였으므로 학교명과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음을 일러둔다(2009년 조사자료). 이 조사에서 2010년에 개설된 미추홀외고, 울산외고, 강원외고와 2008년에 개설된 충남외고는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고 전남외고는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표3-비평준화 명문고 및 평준화 외고 주요 대학 합격자 현황 비교

구분	학교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계
1975년 서울 명문고 주요 대학 합격 현황[42]	경기고	512	51	30	563
	서울고	435	84	17	519
	경복고	232	89	54	321
	부산고	159	65	28	224
	경남고	155	115	31	270
	합 계	1,493	404	160	1,897
	모집정원	2,856	2000(추산)	2000(추산)	6,856(추산)
	합격생 대비율	49.36%	약 16%	약 6.4%	약 26.5%
2009년 상위 5개 외고 주요 대학 합격 현황[43]	외고생 인문계 합격자 수	173	485	502	1,160
	인문계 모집정원	1,088	1,884	1,728	4,700
	합격생 대비율	21.6%	34.1%	35.1%	24.7%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1996년 서울대가 1999학년도부터 외고에 대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대 합격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진학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체 학생 수 대비율을 감안해보면 좀 더 다른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1995년 고교생 전체 수 대비 5대 명문고의 학생 비율은 약 1%인 데 반해[44] 2009년 외고의 학생 비율은 0.2%에 불과하다.[45] 따라서 이 비율을 가중치로 삼아 비교한다면 외고생의 주요 대학 독점률은 명문고 시절의 5배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앞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명문고 시절에는 지방 명문고의 진학 성적도 서울 지역과 버금갈 수준이었으나, 외고의 경우 지방과 현격한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면 수도권 지역 외고의 주요 대학 독점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외고 출신의 특권적 지위는 이제 기성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외고 출신자들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

42) 이 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된 것이다. 「一流大 진학 名門高서 휩쓸어」, 《경향신문》, 1975년 1월 27일자; 문교부, 『문교통계연보』(1975);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2006).

43) 2009년 외고 현황 조사 자료.

44) 1995년 당시 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수는 약 42만 명(http://cesi.kedi.re.kr/index.jsp)이며 5개 고등학교 모집 정원은 4,590명이었다.

45) 2009년 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수는 약 65만 명이며, 5개 외고 모집 정원은 1,940명에 불과하다.

전문직 진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판사의 출신 고등학교 랭킹에서 대원외고는 58명을 배출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순위인 경기고 38명과 비교하더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46] 기성사회에서도 점차 새로운 학벌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외고 출신의 판사 진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1999년 1명, 2000년 0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13명, 2006년에는 25명(합격자 수 대비 13.3%), 2008년 35명(20.8%), 2009년 38명(27.5%)에 달하고 있다.[47] 도합 외고 출신자의 진출은 153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세대가 교체될 경우 외고 출신자의 비율은 현격하게 증가하여 머지않아 비평준화 시대의 명문고가 유지하던 수준 이상의 학벌과 인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고 출신자들이 만들어낸 특권적 네트워크는 이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고 졸업생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29명이 동문이나 선후배 관계가 사회적 자산이며 향후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8] 이제 외고 열풍은 대입 경쟁의 장을 넘어서서 외고 안팎의 특권구조를 형성하면서 사회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IV. 맺음말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외고 열풍은 평준화를 근간으로 유지해온 한국의 교육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외고를 둘러싼 전후방에서 일어나는

46) 「경기도 아성 넘은 대외외고 […] 판사數 1위 등극」, 《연합뉴스》, 2009년 10월 18일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7) 「신임판사 열에 넷 특목고 · 강남 출신」, 《연합뉴스》, 2009년 10월 18일자.

48) 이 조사는 2010년 9월에 실시한 것으로, 응답한 학생 중 12명은 외고 출신, 2명은 자사고, 나머지 16명은 일반고 출신자였다. 외고 출신자 4명 외에는 외고 진학이 서울대 진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대부분 한 번쯤 특목고 진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그 시기는 중학교 때였다고 답하는 점 등 몇 가지 주목해볼 만한 응답 결과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한다.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여 열풍에 작동되는 변인과 맥락을 검토해보았다. 이하 이 글에서 밝힌 외고 열풍의 특징과 그것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는 외고 열풍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고입제도 변천과 교육 경쟁의 지형 변화를 개관하였다. 광복 후 급속하게 확대된 한국교육은 과도한 교육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순차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경쟁이 대입에 집약되도록 만들었다.

결국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대입 경쟁은 좀 더 이른 시기에 경쟁에 앞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분출하였고 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과 결합하였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라는 비판 속에서 제기된 수월성 제고와 이를 수용한 특목고의 설립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입 경쟁의 분출점에서 수용한 새로운 경쟁체제로 이해하였다. 외고 열풍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른 시기의 교육 경쟁을 부활시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상향 이동시킨 교육 경쟁이 그 한계에 달하자 민간의 요구와 결합하면서 다시 하향 이동하고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비평준화 시기의 고입 열풍이 외고 열풍으로 재탄생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것의 형성구조와 특성을 다루었다. 첫째, 외고 열풍은 평준화 이전 시기의 명문고 경쟁에 비해 훨씬 치열하고 장기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외고 학생 수는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 학생 수에 비해 적은 규모이지만 이 적은 규모의 선발에 더 많은 학생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는 '다수 장기 참여'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그리고 이를 확산하는 주요 기제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이며, 사교육 시장이 이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학력 경쟁이 개인의 자아를 성취하려는 의욕과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뒤처질 것을 걱정하는 불안과 조급함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은 한국의 교육 경쟁이 갖는 크나큰 폐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외고 열풍은 우수 대학 진학이라는 사적 욕구와 외고의 자기 유지 욕구가 결합하면서 대입 경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강화되고 있다. 외고의 남설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면서 교육 당국은 당초의 외교 설립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외고의 편법과 위법 사례를 지적하고 계도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명문 대입기관으로서의 외고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셋째. 외고 열풍은 수도권 중심의 상위권 외고에 특권을 집적시키면서 다층적 차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전형과정을 통해 일반집단으로부터 우수 학생을 구분하여 대입 경쟁의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우수한 대입 실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강화한다. 이들이 차지한 특권적 지위는 사회적 선별 인식을 획득하여 대입전형의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음으로써 더욱 강력한 특권을 재형성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모든 외고에서 이루어진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상위권 외고에 한정된 극히 소수집약적 현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와 달리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신분 획득의 높은 성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위권 외고에 집중되고, 지방 외고는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49]

이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형성되는 계층 분화, 그리고 그것의 지역적 편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외고 열풍이 확대되면 될수록 수도권 중심의 고소득층의 자녀들의 교육 안전망은 점점 강화된다. 한마디로 외고 열풍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의 문제를 집약한 부정적 교육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집적된 특권은 사회 내 특권 계층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형성된 특권의 고리는 과거 명문고 출신의 학력과 인맥을 능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외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개선의 초점은 외고가 외국어 영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외고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특목고나 새롭게 도입된

---

49) 서울 외고로 전학 온 전입생은 2007년 95명, 2008년 106명, 2009년 113명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 외고는 전출 학생이 142명, 157명, 162명으로 증가해왔다(「지방 외고의 분노 · 소외감」, 《매일경제》, 2009년 11월 2일자).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가 소재한 광역시도 내의 외고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 2009).

자율고가 활성화된다면 외고 열풍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신명문고 열풍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이 이룩한 성과 위에서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고교체제를 강구하려 한다면, 외고 열풍이 보여준 불안, 파행, 다층 차별의 맥락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고 문 헌

강상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 『교육개발』 32-4, 2005, 17-27쪽.

강영혜 외,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2009.

_____,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 2009.

교육인적자원부, 「특수목적고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일부 외국어고, 자연계 운영 등 부적정 사례 확인」. 2007년 1월 7일 보도 자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2007.

김성천, 「정두언 의원의 외고체제 개혁 법안을 분석, 평가한다」. 『외고대책긴급토론회 자료집』, 2009, 1-28쪽.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5.

박부권, 「모든 학생들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9, 1-31쪽.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2006.

오만석 외,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2003.

원은희, 「100년 교육,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시민시대』 277, 2007, 50-57쪽.

이종각, 『교육열 바라보기』. 원미사, 2003.

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1999.

정병호 외,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제작소, 2007.

중앙교육평가원,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천사-입시제도 개선연구(III)』. 1986.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5.

《경향신문》, 「외고입시 본고사형 문제 '논란', 서울 6개고 수학 등 출제 교육청 지침 위반」. 2006년 1월 19일자.

_____, 「一流大 진학 名門高서 휩쓸어」. 1975년 1월 27일자.

《국민일보》, 「서울 지역 외고 수학 본고사 논란 [··] 교육청, 교장들 소환 강력 대응키로」. 2006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 「김포외고 문제 거의 통째로 유출」. 2007년 12월 1일자.

_____, 「연세대 600명 '글로벌리더 전형' 폐지」. 2010년 11월 11일자.

《매일경제》, 「지방 외고의 분노 · 소외감」. 2009년 11월 2일자.

《서울신문》, 「고교평준화 30년 그 후(1) 명문고 지도가 바뀐다」. 2006년 6월 27일자.

《세계일보》, 「김포외고 교장 고작 '정직 3개월'」. 2008년 3월 19일자.

_____, 「김포외고 합격취소 44명 전원합격 판결」. 2007년 12월 29일자.

《연합뉴스》, 「'외국어고 폐지' 논란 확산」. 2009년 10월 18일자.
_____, 「경기도 아성 넘은 대외외고 […] 판사數 1위 등극」. 2009년 10월 18일자.
_____, 「신임판사 열에 넷 특목고 · 강남 출신」. 2009년 10월 18일자.
교육통계사이트 http://cesi.kedi.re.kr/index.jsp.
2006년 외국어고등학교 실태 조사 자료.
2007년 면담 자료.
2010년 면담 자료.
2008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비공식 조사 자료.
2009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비공식 조사 자료.

국 문 요 약

이 글은 최근 한국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다루었다. 비록 이 현상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준화의 기저를 흔드는 등 단기간에 교육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열풍' 현상의 하나로 주목해볼 만하다. 평준화 이전 시대의 명문고 경쟁과 차별화하면서 '신명문고 열풍'이라 명명하고, 외고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복합적 맥락을 밝혀보았다.

첫째, 외고 열풍은 비평준화 시기 명문고 경쟁에 비해 훨씬 치열하고 장기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혀보았다. 아울러 이를 지속시키는 동인은 사교육 시장의 자본 논리가 만들어내는 불안심리임을 포착하였다.

둘째, 외고 열풍은 당초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가운데 점차 사회적 주목을 받아나가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외고의 문제점이 사회문제화될수록 대입 명문고로서의 위상은 점점 더 강화되고 외고 열풍은 가세되고 있다. 단지 자녀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파행도 묵인하려는 과잉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외고 열풍은 다층적 차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편법적인 전형을 통해 우수 집단을 선별해내고 이렇게 형성된 상위 집단에 대하여 대입전형의 특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도 수도권 외고와 비수도권 외고 간에는 차별화 현상을 보인다. 외고가 안고 있는 특권은 한국사회의 계층 분화와 지역적 편차를 그대로 반영한 다층적 차별구조를 이루고 있다.

투고일 2011. 7. 8.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5.
주제어(keyword) 신명문고(New Prestige High School), 경쟁(Competition), 불안(Anxiety), 특권(Prerogative), 다층 차별(Multi-layered Differentiation)